



죽고 싶어요!

진병수/성상담, 성교육전문가

전 지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. 임신을 했거든요. 벌써 임신한지 5~6개월은 된 거 같아요. 임신인 사실이 무서워서 자꾸 미루다보니 이렇게 됐어요. 자꾸 배는 불러오고 미칠 거 같아요. 지우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.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그렇다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릴 수도 없어요. 부모님께 알려면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너무 무서워요. 이제 계약도 하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. 하루빨리 애를 지우고 싶지만 돈도 없어요. 저 이제 어떻게 해야돼요?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죽고 싶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

무 겁고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알고
—도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 5~6개월인

것 같다고 하셨는데, 그 이상일 수도 있겠군요. 보다 정확한 것은 진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수술 시기는 지났을 수도 있겠군요. 즉 수술이 아니라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뜻이죠. 정말 엄마가 된다는 것으로 이미 조건만 주워진다면 충분히 한 아기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.

17살에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, 아직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참 어이없고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는 답답함만이 남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겠죠.

몇 달 전에도 임신 7개월이 넘었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답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

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생각나는군요. 그 분도 비슷한 사연을 말했죠. 부모님께 알릴 수 없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...

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학교를 못 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죠. 정말 그럴까요. 정말 당신의 사랑스런 딸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. 처음 사실을 알면 그 충격은 대단하시겠죠. 상상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.

그러나 ♡♡님. 이것만은 진실일 것입니다.

어떤 부모가 당신의 자식이 망치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 말

Yeon

입니다.

불행하게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. 물론 아기를 낳을 경우엔 다르죠. 이때는 충분한 경제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. 빠른 곳은 임신 6개월 때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엔 8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.

무엇을 망설이나요. 망설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. 부모님께 한번 몸쓸 딸이 되세요.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자신의 앞날을 위해 노력해 간다면 그때 충분히 보상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

힘내세요. PPFK

